

임진 · 정유재란기 동래 지역의 전황*

—일본군의 주둔 동향과 조선의 대응을 중심으로—

김 경 태**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일본군의 동래 지역 공격과 왜성 축성
- III. 강화교섭기의 협상 거점으로서의 동래
- IV. 정유재란 발발 이후의 공방전과 일본군의 철수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논문에서는 임진 · 정유재란기 동래와 부산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현재의 부산 지역은 전쟁의 중심에 있었다. 조선에 상륙한 일본군은 최초 상륙 지점인 부산과 동래에 대규모의 성을 쌓고 침략의 기지로 삼았다. 이곳은 일본에서 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과 일본군 병력 및 물자가 최초로 도착하는 장소이자,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창구가 되었다.

일본군은 믿음만한 책임자를 임명하여 이 지역을 관리했고, 이곳에는 항상 넉넉한 병력과 군량이 구비되어 있었다. 강화교섭이 시작되면서 조선 주둔 일본군의

* 이 논문은 2018년도 임진란사 학술대회 <부산지역의 임진란사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연구교수 / monguse@hanmail.net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이 지역은 주요 기지로서 유지되었다. 강화교섭의 실무 협상은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일본으로 파견된 명과 조선의 사신도 이곳을 거쳐 일본으로 향했다. 강화교섭이 결렬되자, 부산과 동래는 다시 전쟁 체제를 갖추었다. 전선이 더 좁아졌기에 이곳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과업이 주어졌다. 폭력이 고양된 전장에서 사로잡힌 조선인들은 부산으로 끌려와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전쟁 기간 중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한다. 일본군은 조선에서 군량을 마련해야 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조선에서의 생산물 확보가 중요해졌다. 피난을 택하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이 지역에 그대로 남아 생활을 했고, 일본군은 그들의 생산물을 걷어 군량 등으로 사용했다. 조선은 이들로부터 일본군 진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조선은 끊임없이 이들을 일본군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자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군 투항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 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전쟁 기간 동안 지역이 겪은 역사 중에서 잊혔거나 외면되었던 부분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이 글을 통해 이 기간을 단지 부정적 역사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픈 역사이지만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로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임진왜란, 임진전쟁, 정유재란, 동래, 부산, 기장, 가덕, 왜성,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I. 머리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포함하는 7년의 전쟁 기간 동안 현재의 부산 지역은 전쟁의 참화 속에 있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이 지역은 東萊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동래현은 동쪽으로 機張縣의 경계까지 21리, 남쪽으로 해안까지 15리, 서쪽으로 梁山郡의 경계까지 8리, 북쪽으로 양산군의 경계까지 29리이며, 서울까지의 거리는 962리였다. 속현으로는 東平縣이 있었다.

이 지역의 關防은 동래현의 남쪽 21리 지점의 釜山浦鎭을 비롯하여, 海雲浦營, 多大浦營이 있었다. 부산포진은 경상좌도 수군침절제사가 주둔하여 豆毛浦·海雲浦·鹽浦·甘浦·包伊浦·漆浦·烏浦·丑山浦·多大浦·西生浦 등을 관할했으며, 石城으로 만들어졌다. 해운포영은 동래현 동쪽 9리에, 다대포영은 남쪽 54리 지점에 있었으며, 둘 다 수군 만호 1인이 담당했다. 동래현의 읍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3,090자, 높이는 13자이고, 내부에 6개의 우물이 있었다.)¹⁾

이러한 방어시설들은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바로 정발의 부산진성 전투, 윤홍신의 다대포진성 전투, 그리고 송상현의 동래성 전투이다. 이후 동래부 지역에는 일본군의 기지가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 병력과 물자는 반드시 동래를 거쳤다. 부산 지역의 일본군 기지는 강화교섭 기간에도 유지되었으며, 정유재란 이후에도 기능했다. 그리고 1598년 11월 말 그들이 퇴각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동래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는 앞에서 언급한 부산진성 전투, 다대포진성 전투, 동래성 전투가 잘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전투들이며, 조선시대의 기록화로도 남아있다. 이들 전투는 임진왜란의 緒戰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²⁾

최근에는 전투를 직접 묘사하고 있는 문헌 사료 이외의 유물·유적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이 지역의 실상에 접근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먼저 출토 유물과 유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³⁾ 근래에는 지역민들의 체험과 그에서 비롯한 기억의 형성⁴⁾에 대해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慶尙道 東萊縣.

2) 동래와 부산 지역의 전투만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정중환, 「壬辰倭亂時의 釜山地區戰鬪」, 『군사』 2, 1981. 최효식,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신라문화』 26, 2005.

3) 김동철, 「부산의 일본 관련 문화유적과 활용방안」, 『한국민족문화』 23, 2004. 정의도, 「壬辰倭亂 關聯 遺蹟과 出土遺物 研究」, 『석당논총』, 40, 2008. 심봉근, 「釜山浦와 釜

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사의 관점에서 이곳에 살았던 사람에게 주목한 연구도 있다.⁵⁾ 전쟁 이후의 변화상과 일본 관계에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배출되었다.⁶⁾

이러한 연구들의 분석 대상은 대개 전쟁 초기의 전투이거나 전쟁 이후의 기억에 관한 것이다. 초기의 전투 이후, 강화교섭과 정유재란기 동래 지역은 전투의 중심 지역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군이 이곳에 기지를 만들어 계속 주둔하였고, 가까운 지역에 조선군과 명군이 배치되었다. 강화교섭 기간 중에는 명과 조선의 사절이 이곳에 머무는 등, 교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전쟁 전체를 시야에 둘 때, 이 지역은 전쟁의 대부분 기간 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쟁 초반을 제외하자면 임진왜란사 서술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밖에 나와 있었다.

이제 전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전쟁 전 기간 중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사람들의 활동에 주목하여 이 지역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전쟁 중반 이후 동래 지역의 전황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일본군의 주둔지로서의 동래·부산과⁷⁾, 일본군의 주

山鎭城의 공간적 위치분석], 『문물연구』 25, 2014. 이일갑, 「부산 다대포진성에 대한 연구」, 『향도부산』 35, 2018.

- 4)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被虜人 沙器匠」, 『한국민족문화』 33, 2009. 정출현, 「임진왜란의 상처와 여성의 죽음에 대한 기억 -동래부의 김섬(金蟻)과 애향(愛香), 그리고 용궁현의 두 부녀자(婦女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2010. 변광석,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 2010. 전송희, 「동래성전투에 대한 기억서사와 표상-공간의 형성과정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53, 2013. 조희상, 「忠壯公 鄭撥에 대한 再考察」, 『동방한문학』 60, 2014. 양홍숙, 「부산의 임진왜란 기념물 조성과 도시경관화」, 『지역과 역사』 40, 2017.
- 5) 양홍숙, 「조선의 對日關係와 동래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 6) 하우봉,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과 일본관계」, 『향도부산』 9, 1992. 김강식, 「임진왜란 전후 부산지역의 사회변화」, 『향도부산』 22, 2006.
- 7) 본문에서는 서술상의 편의에 따라 부산을 동래에 포함하여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과 명의 고민,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조선인들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일본군의 동래 지역 공격과 왜성 축성

일본군은 1591년 말부터 침략을 위한 출진 기지로 만들어진 규슈[九州] 히젠[肥前]의 나고야[名護屋]성에 모이고 있었다. 이들은 1592년 3월 13일 내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 이후 나고야를 떠나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 일본군은 이키[壹岐], 쓰시마[對馬]를 거쳐 차례차례 조선으로 건너왔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소 요시토시[宗義智]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 제1군은 4월 13일 쓰시마에서 출발해서 그날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고, 다음날인 14일에 부산진성에서 조선군과 최초의 전투를 치렀다. 이것이 부산진성 전투이다. 그리고 다음날 동래성을 공격했다. 이후 기장과 양산, 밀양을 거쳐 대구에 진입했고, 상주와 충주에서의 전투 이후 5월 2일~5월 3일 새벽에 한성에 들어왔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로 구성된 제2군은 4월 18일에 부산진에 도착했다. 이들은 양산을 떠나 언양을 공격한 후 경주로 향했다. 이후 충주에서 1군과 함께 전투에 임했고 그들과는 다른 길로 5월 3일에 한성에 들어갔다.⁸⁾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이하의 3군과 4군의 모리 요시나리[森吉成] 혹은 毛利吉成으로 표기)도 2군과 같은 4월 18일에 부산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후 김해를 공격한 후 북상했다. 이하의 부대도 모두 부산을 상륙 지점으로 택했다. 이키섬에 주둔하고 있던 9군도 곧 조선으로 건너왔다. 아래에서 언급할

8) 이하, 일본군 각 부대의 전쟁 초기 이동 경로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文祿慶長の役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의 분석을 참고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카쓰[豊臣秀勝]는 5월 중순 정도에 조선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부산과 동래에 주둔했다.⁹⁾

위의 사실을 통해 부산을 포함한 동래 지역은 임진왜란 초기 대부분의 일본군들이 상륙지점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전한 상륙지점, 즉 교두보의 확보는 군사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동래가 바로 그 지점이었고 이 지역은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의 ‘체계적’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조선 남부 지역에서의 전투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1592년 하반기 동래 지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으로 조선에 왔던 시모세 요리나오[下瀨頼直]의 『朝鮮渡海日記』¹⁰⁾와 나베시마 나오시게 가문의 문서인 『鍋島家文書』에 나타난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 장수들의 주둔 현황을 참고하면, 부산에는 도요토미 히데카쓰와 그의 휘하 장수, 동래에는 도요토미 히데카쓰 휘하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 도요토미 히데카쓰는 히데요시의 외조카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1592년 9월에 조선에서 병사하였다. 이후 그의 領地와 군사는 오다 히데노부[織田秀信]¹²⁾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9월 이후에는 노부히데의 부하들이 조선에 와서 히데카쓰 소속 부대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일본군이 이 지역에 건설했던 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부산 주둔 일본군의 중심기지인 부산성은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가 축성했으며, 이후 모리 요시나리 등이 주둔했다. 이 성은 子城에 대비하여 母城으로도 불린다. 일본군의 부산성에 연결된 자성은 모리

9)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軍史』 95, 2015, 371~373쪽.

10) 『防長叢書』 6, 防長史談會, 1934.

11)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軍史』 95, 2015, 378~379쪽.

12) 오다 노부타다[織田信忠]의嫡子이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嫡孫.

히데모토[毛利秀元] 등이 축성하였다. 동삼동의 왜성(일명 椎木嶋城)과 중앙동의 의 왜성(일명 迫口門城)은 모리 데루모토가, 칠산동에서 안락동에 걸친 동래의 왜성(일명 도쿠네기[とくねぎ])은 깃카와 히로이에 [吉川廣家] 등이 쌓았다고 한다.¹³⁾ 물론 동래에서 가까운 기장, 거제에도 다수의 왜성이 건설되었고, 성과 성을 잇는 거점성도 만들어졌다. 동래와 부산의 성은 강화교섭기에도 폐기되지 않았기에, 정유재란시에도 다시 축성될 필요가 없었다. 아마 일정한 수축을 거쳐 재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왜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조선성의 일부를 이용하기는 했으나, 대개 일본 양식의 성으로 재편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들 성은 현재도 凡川 甑山城과 子城臺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부산진성을 자성대쪽으로 옮겼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산왜성의 支城이었던 자성대 왜성의 외곽 라인을 그대로 이용했거나, 조선이 일본의 성벽 양식을 모방하여 수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¹⁵⁾

현재 부산에서 발굴되고 있는 왜성 유적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지역 내에는 총 8개의 왜성이 확인된다고 한다. 그중에서 조선시대 당시 동래현 지역에 위치한 왜성은 동래성, 부산성, 동삼동성 등이다. 동래왜성은 동래구 복산동과 칠산동, 안락동 일대에 축성된 동래읍성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동삼동왜성은 영도구 동삼동 해변의 일산봉 정상에 위치한다. 이곳의 북측에는 감만동과 신선

13) 太田秀春, 『朝鮮の役と日韓城郭史の研究 —異文化の遭遇・受容・變容—』, 清文堂, 2005.

14) 일본군의 조선성 이용 및 전쟁 이후 조선의 일본성 이용 양상에 대해서는 羅東旭, 『壬辰・丁酉再亂前後の朝鮮城と日本城の相互利用に關して-釜山鎮城を中心に』, 『倭城の研究』 6, 城郭談話會, 2010 등을 참조.

15) 羅東旭, 『壬辰・丁酉再亂前後の朝鮮城と日本城の相互利用に關して-釜山鎮城を中心に』, 『倭城の研究』 6, 城郭談話會, 2010; 『淺野家文書』 257.

대가 마주보고 있으며 해협이 들어와 있어, 부산만으로 오가는 모든 선박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¹⁶⁾

조선의 기록에서도 일본군이 기지를 건설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1593년 2월 18일 경상좌도 관찰사 韓孝純의 치계에 의하면 부산·동래·서평·다대포 등지에는 성을 건축하거나 수축하기 위해 성터를 설계한 모습이 목격되었다. 일본군은 東萊倉의 곡식을 부산포로 옮겨두고, 일본에서 가져온 군량은 부산 앞바다의 아차도에 운반해 놓았다고 한다.¹⁷⁾ 강화교섭이 시작되기 직전 무렵에도 부산과 동래 사이에는 많은 선박이 오가고 있었다. 조선은 일본의 선박의 이동을 목격하고 이를 증원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⁸⁾

당시 한효순은 경상좌도 남부 지역에 배치된 장수들이 모은 정보를 정리하여 조정으로 올려보내고 있었다. 한편 한성에서는 명군과 일본군이 강화교섭을 위해 협상 중이었고, 협상에 관한 정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공유하고 있었다. 조선군이 목격한 일본군의 움직임은 앞으로 전개될 강화교섭에 대응하기 위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1593년 4월 18일 일본군은 한성에서 모두 물러나 남쪽으로 향했다. 전쟁이 본격적인 강화교섭 기간에 접어들자 다수의 일본군들은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한효순은 이를 목격한 후 “많은 왜적 병력이 밀양으로부터 내려와 밤중에 동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산에 주둔하고 있는 남은 적병도 전과 같이 가득 차 있으며, 왜선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서생포에 정박하였는데, 이는 모두 귀환하는 배를 영접해 갈 배들입니다. 동래·부산 등지의 왜적은 거의 모두 돌아갔고, 우리나라의 포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¹⁹⁾라고 보고했다. 기존에 동래와 부산

16) 羅東旭, 『韓國釜山市域の倭城の現狀』, 『倭城の研究』3, 城郭談話會, 1999.

17) 『宣祖實錄』 권35, 선조26년(1593) 2월 18일 계묘.

18) 『宣祖實錄』 권37, 선조26년(1593) 4월 17일 신축, 19일 계묘, 20일 갑진.

19) 『宣祖實錄』 권39, 선조26년(1593) 6월 12일 을미.

에 머물던 일본군들 상당수가 일본으로 돌아갔고, 한성에서 남하한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Ⅲ. 강화교섭기의 협상 거점으로서의 동래

1. 교섭공간으로의 변모

강화교섭은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양측의 실질적인 교섭 담당자는 沈惟敬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이었다. 일본군이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해안으로 퇴각하여 기지를 건설한 후 주둔하고 있었기에, 심유경은 직접 교섭을 위해 동래 방면으로 향했다. 명군이 일본에 파견한 謝用梓와 徐一貫도 이때 동래를 거쳐 일본군 출신 기지인 규슈의 히젠 나고야로 향했고, 그곳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난 후에 귀환했다.

1594년 1월 당시 조선이 얻어 낸 정보에 의하면, 일본군의 주둔지는 울산·서생포에서 동래와 부산을 지나, 기장·언양·양산·김해·웅천·제포·가덕·천성·거제·영등포·울포·옥포·지세포를 포함하여 수십 구역이나 되었다. 일본군은 크고 작은 방어시설 및 성과 해자를 설치하였으며, 식량을 운반하고 곡식을 재배하며 장기 주둔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²⁰⁾ 부산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한성을 후퇴하기 직전인 1593년 3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기 주둔에 대비한 보완 축성을 지시한 바 있었다.²¹⁾ 4월 말, 히데요시는 부산의 항구 부근에 여러 개의 성채를 수축한 모리 테루모토를 치하하는 서장을 보내기도 했다.²²⁾ 강화

20) 『宣祖實錄』 권47, 선조27년(1594) 1월 19일 무술.

21) 1593년 3월 10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淺野家文書』 263).

22) 1593년 4월 2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리 테루모토에게 보낸 명령서(『毛利家文

교섭이 시작된 직후, 모리 테루모토가 부산으로 다시 내려와 성을 수축한 후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차 진주성 전투가 끝난 후에는 모리 테루모토에게 일본 귀환을 지시하고, 부산에는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 동래에는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가 주둔하게 하였다.²³⁾

조선측이 사로잡은 적을 심문한 기록에 의하면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1594년 3월 당시 왜성에 머물러 있는 일본군의 수효는 서생포에 5천명, 임랑포에 3천, 기장에 3천, 동래에 1천, 부산포에 1만, 양산의 구법곡에 3천, 좌수영에 3백, 김해에 1만 8천, 안골포에 2천, 가덕에 7백, 응천·제포에 4천, 거제에 7천여 명이었다고 한다.²⁴⁾ 동래와 부산 권역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방어사로서 일본군과의 최전선에서 주둔하던 金應瑞가 일본군 진영에 파견한 정탐인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이 정탐인은 오랫동안 경주에 있으면서 동래와 부산을 정탐하였는데, 대략 5백여 척의 일본군 선박이 항구에 와서 정박하였고 그 배에서 내린 군졸들이 다섯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부산·동래 등의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또 해변에는 가을보리를 많이 심고 마늘도 많이 심었으며, 조선인 중에서 적에게 투항한 자들을 일본군이 나누어 농지에 배치하고 이들을 통솔할 자도 조선인 중에서 임명하게 했다고 하였다.²⁵⁾ 당시 장기에서 동래·

書』 893).

23) 1593년 7월 27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리 테루모토에게 보낸 명령서(『毛利家文書』 919); 1593년 8월 7일자로 히데요시가 모리 히데모토에게 보낸 명령서에는 “동래성의 혼마루[本丸]에는 가문 외의 사람은 들이지 말 것”이라는 지시가 보인다(『吉川家文書』 748). 모리 히데모토와 깃카와 히로이에가 주둔지를 서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모리 히데모토와 깃카와 히로이에가 원래 모리 가문으로 사촌 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리와 깃카와 가문 외의 인물을 들이지 말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24) 『宣祖實錄』 권49, 선조27년(1594) 3월 18일 병신.

25) 『宣祖實錄』 권47, 선조27년(1594) 1월 26일 을사.

부산·기장을 지나 김해·웅천 등 일본군 주요 진영이 있던 곳의 주변에는 여전히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있었다. 일본군은 그들을 노역에 동원하거나, 농사를 짓게 하여 그들로부터 생산물을 걷기도 했다.²⁶⁾ 조선 정부는 이들 중에서 일본군의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에게는 復戶帖을 주는 조치를 취하여,²⁷⁾ 일본군의 현지 지배력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조선의 민심을 진작시키고자 했다.

한편 조선측에서는 일본군 점령 지역에 대한 정탐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본군 점령 구역 내의 조선인을 바깥으로 유도하는 외에도, 조선에 투항하려는 일본군의 진위를 확인하고 설득하거나 적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래의 일본군 구역에 있던 조선인을 이용하기도 했고,²⁸⁾ 이들로 하여금 동래·부산·김해 등지에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일본군을 유인한 조선인에게는 포상을 내렸다.²⁹⁾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활동을 하던 방어사 김응서 역시 자신이 확보한 경로를 통해 일본측과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군관 이극함을 동래 등지에 보내어 粟矢羅 등 일본측 교섭인을 만나 일본군의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³⁰⁾

조선은 일본군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 장수의 동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1595년 초반 당시 부산 진영에는 명군에서 파견

26) 당시 동래의 일본군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던 조선인은 천여 戶나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1595년 초 강화교섭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지역으로 돌아오려는 의향을 보였다(『宣祖實錄』 권60, 선조28년(1595) 2월 30일 계유).

27) 『宣祖實錄』 권40, 선조27년(1594) 3월 25일 계묘.

28) 『宣祖實錄』 권54, 선조27년(1594) 8월 16일 신유. 『宣祖實錄』 권55, 선조27년(1594) 9월 4일 기묘; 송창세와 정승헌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일종의 정보원이자 첩자로서 활동했다.

29) 『宣祖實錄』 권55, 선조27년(1594) 9월 4일 기묘; 9월 6일 신사.

30) 『宣祖實錄』 권54, 선조27년(1594) 8월 27일 임신. 『宣祖實錄』 권56권, 선조27년(1594) 10월 1일 을사.

한 譚宗仁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인질로서 머물고 있었고, 유격 직함을 띤 陳雲鴻이 일본군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조선은 명군 장수를 수행하는 접반사를 두었는데, 이들이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동래와 부산, 김해의 일본군 진영에 직접 들어갔다가 목격할 바를 조정에 보고하기도 했다. 진운홍의 접반사였던 李時發은 일본군 진영의 동향을 상세히 전하는 한편, 일본군 진영에 있던 중국 출신 통사와 대화를 통해 당시 조선에 머물고 있던 장수들의 이름과 주둔지를 기록하여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는 일본군 장수 이름 혹은 관명의 발음을 한자로 음차하고 있는데, 동래에는 ‘공가와마다시지(共加臥馬多時之)’, 부산에는 아긴노산소우(阿緊奴山小子)라는 장수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다.³¹⁾ 동래의 공가와마다시지는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 아긴노산소우는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³²⁾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두 장수에게는 1593년 7월 28일의 명령서로 각각 동래와 부산 주둔에 주둔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다. 왜성의 지성이었던 ‘迫門口’의 성에는 정권 차원에서 직접 무기와 군량 등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인다.³³⁾

31) 『宣祖實錄』 권60, 선조28년(1595) 2월 10일 계축.

32) ‘공가와’는 ‘깃카와’의 음차로 생각된다. ‘마다시지’는 깃카와 히로이에의 이름 중 하나인 ‘마다지로[又次郎]’의 음차일 가능성이 있다. ‘아긴노산소우’는 모리 히데모토의 명칭 중 하나인 ‘아키노 사이쇼우[安藝宰相]’의 음차로 여겨진다. 한편, 1595년 4월, 降倭 조사랑(助四郎)·노고여문(老古汝文) 등의 공초에 의하면, 당시 동래에 주둔하는 장수는 樹下이며 동래에 있는 일본군 진영의 수비가 허술한 것 같다고 하였다. (『宣祖實錄』 권62, 선조28년(1595) 4월 19일 신유) “樹下”는 기노시타라는 성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동래와 부산에는 큰 규모의 주둔지 외에도 여러 장수들의 소규모 주둔지가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33) 『毛利家文書』 919; 동래와 부산의 일본군 진영은 중요한 요새였던 만큼 일본에서 보낸 군량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황이 어려워졌다는 일본군의 보고를 전달받은 이후, 부산에 군량을 보내어 자군을 지원한 바 있다. 수많은 배가 이 수송을 위해 동원되었다(1593년 2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淺野家文書』 262, 『鍋島家文書』 51, 『黒田家文書』 114). 원래 일본군의 군량은 동원된 장수가 스스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강화교섭 기간 중에는 주둔 태세를 유

명 조정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에 책봉하기 위한 冊封使를 차출하였다. 1595년 1월 북경을 출발한 책봉사는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경로를 택했다. 책봉정사 이종성, 책봉부사 양방형이 이끄는 사절은 4월에 의주에 이르렀고 같은 달에 한성으로 들어왔다. 이들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온 심유경은 곧장 부산으로 향했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책봉사 차출 소식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게 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1595년 5월, 이들이 조선에 들어와 남쪽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교섭 진전에 만족한 듯, 당시까지 남아있던 해안의 왜성 15개 중 10개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본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 소장되어 있는 『江雲隨筆』에 실린 해당 명령을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³⁴⁾

1. 심유경이 조선의 웅천³⁵⁾에 도착하여 大明의 강화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명의 鈞命에 따라 조선국을 용서하고자 하니, 조선의 왕자 1인을 일본에 보내어 다이코[太閤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幕下에서 모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조선 8도 중 일본에 속해있는 4도는 지난해부터 이야기한 바와 같이, 왕자가 일본에 와서 近侍하는 즉시 왕자에게 부여할 것이다. 조선의 대신 2인이 돌아가면서 왕자를 보좌할 것
1. 심유경과 조선 왕자가 함께 웅천에 도착하면 일본이 건설한 15개의 성 중에서 10개의 성을 즉시 파괴할 것
1. 대명의 황제가 조선국과의 화평을 간구하므로, 그에 따라 용서한

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왜성에 보관된 군량의 관리도 중요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주둔지의 군량이 부족할 시에는 동래와 부산의 군량을 빌려 저장해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鍋島家文書』 78, 97).

34) 『江雲隨筆』 17번째 문서 ; 김경태, 『東京大學 史料編纂所 소장 『江雲隨筆』 내 임진왜란 관련 사료 해제』, 『전쟁과 유물』 7, 2015, 138~140쪽.

35)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하고 있던 웅천왜성을 가리킴.

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의례로서 명의 칙사가 조서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올 것이며, 지금부터 명과 일본은 관선과 상선을 왕래하고 金印과 勸습으로 照驗할 것

이 명령은 즉시 이행되어 왜성 철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명령서의 지시와 같이 일부 주요한 주둔지는 철거되지 않았다.³⁶⁾ 부산과 동래는 당연히 잔존 왜성으로 지정되었다. 이후로도 동래와 부산 지역은 일본군 주둔지로서 존재했으며, 따라서 조선은 이곳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다.³⁷⁾ 아래에서는 조선의 사료를 통해 왜성 파괴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일본으로 건너갔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6월 26일 조선으로 돌아왔고, 곧 히데요시의 일본군 귀환 명령이 내려졌다. 7월, 양방형이 한성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했고, 9월에는 이종성이 남하를 시작했다. 그리고 양방형은 10월 8일, 이종성은 11월 22일에 각각 부산의 일본군 진영에 진입했다.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다. 이듬해인 1596년 1월에는 책봉사를 맞이하기 위한 최종 조율을 위해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유경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부산에서는 책봉사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가 한창이었을 것이다. 강화교섭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1595년 초부터 조선 남부의 일본군 진영에서는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뻐하는 분위기가 조선인 정탐인에게 포착되고 있었다.³⁸⁾

1595년 7월, 요시라가 김응서의 군관 정승현에게 전한 말에 의하면

36) 1595년 6월 2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보낸 명령서 {『鍋島家文書』 83 (佐賀縣立圖書館編, 『佐賀縣史料集成』 3)}.

37) 1595년 5월 2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 다른 명령서를 통해 모리 요시나리로부터 금 부산에 주둔하게 하였다(『鍋島家文書』 96).

38) 『宣祖實錄』 권60, 선조28년(1595) 2월 30일 계유.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가) ‘임랑포·두모포·부산·동래·구법곡·김해·덕교·안골포·거제·장문포는 곧 먼저 (일본으로) 들여보낼 것이고, 그 밖의 여섯 개 진영과 죽도의 진영은 그대로 놓아둘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산으로 진을 옮겨 수로의 편리함을 취해 명나라 사절을 영접할 것이고, 소 요시토시는 어제 성을 모두 부수어버렸으니 뒤따라 마땅히 軍幕을 불태우고 동래로 옮길 것이며, 가덕의 진영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던 옛 진영으로 옮기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북병장으로서 양산·구법곡에 진영을 옮기고는 명사를 기다려 모두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고 하였다”라고 한다.³⁹⁾

당시 심유경과 함께 일본군 진영에 있던 황신의 보고에서도, “소 요시토시는 현재 고니시 유키나가의 진영에 있는데 근일 동래로 진영을 옮겨 명나라 사절이 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 관백(關白: 도요토미 히데요시)이 임명하여 보낸 풍신정성(豊臣正成: 데라자와 마사나리[寺澤正成])이 어제 저녁 유격(遊擊: 심유경)에게 ‘내가 직접 부산에 가서 군대를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라고 여러 진영에 재촉하고 거제의 세 진영도 수일 내에 불태우겠다’라고 했습니다”라는 정보를 전했다.⁴⁰⁾

요컨대, 강화교섭이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일본군 진영을 줄이고, 그곳에 있던 일본군을 귀국시키는 한편, 부산과 동래로 시설 및 인원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곳에는 명에서 파견된 책봉사를 접대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들과 함께 일본으로 들어갈 준비도 진행되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데라자와 마사나리를 따로 파견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⁴¹⁾

39) 『宣祖實錄』 권65, 선조28년(1595) 7월 8일 기묘.

40) 『宣祖實錄』 권65, 선조28년(1595) 7월 17일 무자.

41) 임진왜란 기간 중 선박과 수송에 관한 군무를 담당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라쓰(唐津)에 영지를 수여받기도 했다.

2. 교섭기간 중 일본군의 주둔실태

동래와 부산에 집중된 일본군 진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9월의 목적담에 의하면 우선 부산 왜성의 외견은 다음과 같았다. “부산 평행장(平行長: 고니시 유키나가)의 진영 안은 전후 수만 여 호이고, 왜추(倭酋: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 사신 및 유격(심유경)을 위하여 큰 집 두 채를 지었는데 매우 장려하였습니다. 적의 진영은 높은 곳에 의지하고 험준한 데에 의거하였으며, 산을 등지고 바다에 임해 있는데 배 5백~6백척이 포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동래와 부산의 20리 길에는 벼가 무성하였습니다.”⁴²⁾ 요컨대 부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들어간 이후 책봉사 접대 및 일본 파견을 위한 중심 기지가 되었다. 책봉사를 위한 건물을 따로 지었고, 일본과 조선을 오가기 위한 선박도 가득 정박해있었다. 조선인을 동원한 농업활동도 지속되고 있었다.

이어서 동래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동래의 賊酋 평의지(소 요시토시)·평조신(야나가와 시게노부)은 환곡 납입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청정(가토 기요마사)은 서생포에서 두모포로 옮겨 城池를 수선하고 있다 합니다. 진영 내의 모든 왜인 토목 공사가 끊이지 않아서 ‘영차[呼聲]’ 소리가 곳곳에서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대개 16개 진영 중에 반수 이상은 도해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두모포·동래·부산·죽도·가덕·안골포 6개 진영이라 합니다.”⁴³⁾ 요컨대 일본군은 동래와 부산 지역으로 남은 병력을 집중하여 더욱 강한 기지를 만들었고 재생산 구조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 『宣祖實錄』 권67, 선조28년(1595) 9월 28일 정유.

43) 『宣祖實錄』 권67, 선조28년(1595) 9월 28일 정유. 일본측 문서에 의하면 남아있던 성은 동래와 부산을 비롯하여 가덕, 죽도, 기장, 안골포였다고 한다{1595년 10월 6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가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보낸 서장(『島津家文書』 1797)}. 조선이 얻은 정보와 같았다.

그런데 책봉사 파견의 전제 조건은 모든 일본군의 철수였다. 책봉사와 조선측은 일본에서 책봉을 끝내고 돌아온 사절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을 동래와 부산 등지에 미리 만들어야 할 것이니, 이 지역의 백성들을 미리 위무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군 진영 내에 있던 조선인들 중에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본군에 붙어서 오히려 강화교섭이 성사되어 전쟁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⁴⁴⁾ 조선은 이 지역이 결국에는 조선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고, 미리 지역민들을 달랠 준비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철수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끝내 부산 등지의 진영은 철거하지 않았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일본군 진영이 약화될 경우 조선이 공격할 우려가 있기에 철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⁴⁵⁾

1595년 11월 시점의 보고에 의하면, 동래에는 기존의 일본군 병력이 모두 철수하고 소 요시토시가 들어와 진영을 마련하고 있었다. 군사는 5백여 명이고 성 안팎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3백여 호였다고 한다. 부산 역시 대부분의 일본군은 도해하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옮겨 와서 부하장수 6명 이하 수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다. 포수와 검수가 1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배는 680여 척 정박해 있었다. 이전까지 왜성 철수 작업을 담당했던 데라자와 마사나리가 책봉사 영접 임무를 띠고 들어와 있었다.⁴⁶⁾

부산의 왜성은 책봉사 영접을 위한 시설 외에도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다. 새로 지은 성의 규모는 주위가 6~7리였는데, 主山 위에 석성을 쌓고 그 위에 3층 누각을 지어두었다고 한다. 부산왜성에는 天守閣이

44) 『宣祖實錄』 권67, 선조28년(1595) 9월 28일 정유.

45) 『宣祖實錄』 권74, 선조29년(1596) 4월 27일 계해.

46) 『宣祖實錄』 권69, 선조28년(1595) 11월 2일 경오.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을 개설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이 섞여 교역하고 있었다. 동평에서 범천까지 조선인이 3백여 호나 되었고, 좌자천 근처에서 鮑作하며 살아가는 자도 1백여 호였다고 한다.⁴⁷⁾

책봉사가 모두 부산에 진입한 11월말 이후 12월 시점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변화가 목격된다. 동래에 살고 있던 조선 백성의 말에 의하면, 1594년에는 환곡으로 절반을 거두었는데, 1595년에는 1/3만 수납하여 창고에 두지 않고 배로 실어 나르니 이는 철수할 조짐이라고 추측하였다.⁴⁸⁾ 동래 지역의 주둔지를 축소하고 부산으로 집중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래와 부산의 일본군은 물론, 조선과 명도 책봉사가 바다를 건너기만을, 그리고 강화교섭이 성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1596년 4월, 이종성이 부산의 일본군 진영을 탈출한 것이다. 그의 탈출을 알아챈 조선의 통역관 남호정이 동래까지 뒤쫓아 갔으나 이미 험난한 사잇길로 달아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급거 귀국하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둘렀다. 강화교섭을 중지할 생각이 없었던 명 조정에서도 부사였던 양방형을 정사로 승임하고 심유경을 부사에 임명하여 사절단을 재구성한 후, 책봉 임무를 지속하게 했다.

1596년 6월, 재구성된 책봉사절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선의 통신사는 책봉사보다 늦게 일본으로 향했다. 통신사는 7월 말에 부산을 떠나려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줄 서계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8월 초에 통신사 부사 박홍장이 물품을 가지고 오자 일본군 장수들이 동래에서 군사를 사열하여 맞이했고, 정사 황

47) 『宣祖實錄』 권69, 선조28년(1595) 11월 2일 경오.

48) 『宣祖實錄』 권70, 선조28년(1595) 12월 12일 경술.

신과 박홍장 이하 통신사는 야나가와 요시노부 등 일본측 수행원과 함께 비로소 부산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이후 남은 일본군 진영은 부산과 가덕도, 김해 죽도뿐이었다.

조선과 명군측에서는 상당수의 일본군이 물러난 상태였던 동래 지역을 조선의 지방관이 관리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⁴⁹⁾ 그러나 곧 일본군이 대거 재진입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듯하다. 이때 명조정에서 강화교섭의 책임을 지고 있던 명의 병부상서 석성은 부산의 왜적이 모두 다 돌아갔다는 내용의 題本을 황제에게 올렸는데, 조선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은 책봉사의 뒤를 이어 조선의 통신사마저 일본으로 건너간다면 부산의 정보를 얻을 길이 사라질 것이니, 현재 남쪽에 있는 이중에 한 사람을 골라 명군의 군졸이라고 하여 부산의 일본 진영에 들여보내자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⁵⁰⁾ 강화교섭이 진전되면서, 대치하고 있던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어 실제로 진영 간의 약속을 마련하기도 했다.⁵¹⁾

이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책봉사와 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1596년 9월초 책봉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 책봉의례를 행했다. 그러나 강화교섭은 성사되지 못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책봉 외에 조선으로부터도 ‘승전의 증거’를 얻고자 했으나 거부당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책봉사와 통신사는 쫓겨나듯 조선으로 돌아왔다.

1596년 11월 23일 통신사 일행이 부산에 도착했고, 12월 8일에는 고니시 유키나가, 12월 21일에는 책봉사가 부산에 도착했다. 강화교섭 결렬 소식은 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조선에 도착했다. 당시 부산의

49) 『宣祖實錄』 권80, 선조29년(1596) 9월 1일 갑오.

50) 『宣祖實錄』 권77, 선조29년(1596) 7월 25일 경인.

51) 김경태, 『임진전쟁기(1594년) 조선군과 일본군의 이면교섭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61, 2018, 참고.

일본군 진영에 남아있던 진운홍을 수행하던 조선인 접반관인 성이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1596년 10월 18일 밤에 변장을 하고 몰래 진영을 탈출한 일이 있었다.⁵²⁾ 아마 ‘불길한 소문’이 퍼지자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조선 조정에는 11월 초, 성이민의 장계 등을 통해 교섭 결렬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다.⁵³⁾

조정 논의에서는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전과 같이 명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선조는 일본이 부산을 길목으로 삼아 오래 버티면서 승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예상은 실제와 부합하였다. 일본군은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 올 것이고, 그렇다면 상륙지점으로 다시 부산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거제를 장악하여 부산으로 오는 적을 해상에서 막지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⁵⁴⁾ 또 부산 이외에 다른 곳을 淸野한다면 부산에만 군량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니 내륙 깊이가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조의 의견도 있었다.⁵⁵⁾ 이처럼 조선은 이전의 경험을 살려 일찌감치 부산 방면을 대상으로 한 방어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1596년 12월 일본에서 돌아와 부산에 도착한 통신사 정사 황신이 조정에 보고를 올렸다. 황신은 귀환 길에 고니시 유키나가 등으로부터 강화교섭 결렬의 진상과 재침 실행시 일본군의 예상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들었다.⁵⁶⁾ 황신이 전한 보고에 의하면, 고니시 유키나가 등은

52) 『宣祖實錄』 권81, 선조29년(1596) 10월 25일 무자.

53) 『宣祖實錄』 권82, 선조29년(1596) 11월 1일 계사.

54) 『宣祖實錄』 권82, 선조29년(1596) 11월 1일 계사, 11월 5일 정유, 11월 9일 신축.

55) 『宣祖實錄』 권82, 선조29년(1596) 11월 7일 기해; 일본군 역시 강화교섭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부산 지역에서 경작물을 많이 걷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군량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인데, 조선이 청야를 하여 조선에서 얻을 식량이 사라진다면 오로지 일본에서 실어오는 군량에만 의지해야 하고 일본군의 형세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었다(『宣祖實錄』 권82, 선조 29년(1596) 11월 16일 권윤의 서장).

일본군이 재침을 실행에 옮기더라도 준비가 필요하기에 대군이 침략을 시작하는 것은 이듬해 3~4월이 되어야 할 것이며, 상륙 지점은 부산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했다고 한다. 또한 군사가 출동하기 전에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먼저 부산에 도착해 조선과 교섭할 것이라고 했다.⁵⁷⁾

요컨대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일본군이 먼저 바다를 건너와 부산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실제 전투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정보였다. 한편 부산에 충분한 병력이 모이지 않았을 때 조선군이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⁵⁸⁾

IV. 정유재란 발발 이후의 공방전과 일본군의 철수

1596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즉시 재침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강화교섭 중 대부분의 일본군이 본토로 퇴각하였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왜성도 파괴한 상태였기에, 재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군사 재정발과 이동, 그리고 전진 기지의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했다. 또한 결렬 선언 이후에도 일말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투 발발 직전까지 교섭이 이루어졌다. 조선의 정탐인 등도 부산의 일본진영을 활발히 오갔다.⁵⁹⁾ 그

56) 강화교섭 결렬 후 정유재란 직전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섭에 대해서는 김경태,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수집과 재침 대응책』, 『한일관계사연구』 59, 2018을 참고.

57) 『宣祖實錄』 권82, 선조29년(1596) 12월 21일 계미.

58) 조선은 실제로 부산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의 일본군 진영 방화는 그 공로의 소재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宣祖實錄』 권84, 선조30년(1597) 1월 2일 계사).

59) 김응서는 일본 장수들과 접촉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리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고 말았다.

협상의 전개와는 별도로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의 통신사와 함께 1596년 12월 조선에 돌아와 동래와 부산에 주둔했고, 1597년 1월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와 부산에 도착한 후 서생포로 들어갔다. 다른 일본군들도 연이어 부산에 배를 대고 상륙했다.⁶⁰⁾

1597년 2월 하순, 김응서가 조정에 보낸 정탐인들의 보고에서는, “성터는 고치고 모든 장비는 전일의 배나 되어 나아가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에는 왜적의 무리가 7천여 명이나 되고, 가옥의 숫자는 1천여 좌이며 배의 척 수는 대소선을 합하여 모두 70여 척입니다. 안골포의 왜적 수는 1천여 명, 가옥 수는 2백여 좌, 선척 수는 40여 척이고, 가덕도는 왜적 수가 5백여 명, 가옥 수는 1백여 좌, 선척 수는 20여 척이었으며, 죽도는 강의 어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사해 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⁶¹⁾ 일본군이 속속 부산에 상륙하여, 이전과 같은 규모의 진영을 다시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선은 즉시 명조정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공식 문서 외에도 병부에서 통사를 통해 직접 급박한 정세를 전하기도 하였는데, “적장 행장(行長: 고니시 유키나가)과 정성(正成: 데라자와 마사나리)이 이미 책봉사가 돌아올 적에 함께 바다를 건너와서 동래와 부산의 옛 진영에 둔거하였고”, 다른 일본군들도 모두 이전의 진영에 주둔을 시작했다면서⁶²⁾ 다시 구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군의 상륙이 이어지면서, 동래와 부산 이외의 지역도 다시 적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은 수군을 이용하여 부산 앞바다를 제어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부산과 김해 등지로 보내 실상을 정탐하게 했다(『宣祖實錄』 선조30년(1597), 5월 18일 무신).

60) 『宣祖實錄』 권87, 선조30년(1597) 4월 21일 임술.

61) 『宣祖實錄』 권85, 선조30년(1597) 2월 23일 갑신.

62) 『宣祖實錄』 권87, 선조30년(1597) 4월 15일 을해.

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은 부산포 앞바다에서 위력 과시를 하여 일본군을 견제하고 나아가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군의 피해도 발생했다. 1597년 2월에는 조선 수군이 부산포 앞바다에서 배를 모아 열병한 뒤에 물러나다가 물을 걷기 위해 육지에 올랐던 格軍들이 일본측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안골포쪽으로 끌려갔는데, 요시라의 주선으로 풀려났으나 조선 수군의 정보를 유출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⁶³⁾ 조선측에서도 부산에서 출발한 일본군의 배를 나포하여 무기 등을 빼앗은 후 돌려보내기도 했다.⁶⁴⁾ 본격적인 전투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전선에서는 상호 견제와 함께 이전에 맺었던 일종의 경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97년 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군 전군에게 재침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서에는 부산을 포함한 5개 지역의 주둔지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부분만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⁶⁵⁾

(前略)

- 1(8번째 조항). 부산포성에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10,000명)와 군감찰[군메쓰케 : 軍目付] 오타 카즈요시[太田一吉](390명)가 주둔하고, 선봉 부대의 보고 전달에 주의를 기울여 임할 것
- 1(9). 안골포성에는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5,000명)가 주둔할 것
- 1(10). 가덕도성에는 다카하시 나오쓰구[高橋直次](500명), 쓰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500명)가 주둔할 것

63) 『宣祖實錄』 권86, 선조30년(1597) 3월 20일 경술

64) 『宣祖實錄』 권86, 선조30년(1597) 3월 25일 을묘

65) 1597년 2월 21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군 장수들에게 내린 명령서 (『島津家文書』 402, 『毛利家文書』 931 등) ; 병력 수는 『島津家文書』 403과 『毛利家文書』 932 등의 문서를 참고

- 1(11). 죽도성에는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1,000명)가 주둔할 것
- 1(12). 서생포성에는 아사노 요시나가[淺野幸長](3,000명)가 주둔할 것
(中略)
- 1(19). 위의 군사 행동이 끝난 후에는 전략거점성(仕置之城)을 지을 장소를 논의하고, 다수결로 성주를 정할 것. 축성 등은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인 부대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후 작업에 임하게 할 것

위의 명령서가 임진왜란 직전의 명령과 다른 부분은 처음부터 해안 거점에 주둔할 장수와 병력이 정해져 있었다는 부분이다. 부산포를 포함하여 명령서에 등장하는 다섯 성은 강화교섭 기간에도 폐쇄되지 않았거나, 강화교섭 결렬 직후 축성이 시작된 곳이다. 새로운 성은 일련의 전투 행동이 끝난 후에 논의하여 축성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섯 성에 주둔하는 병력은 내륙 공격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앞선 전쟁의 경험을 통해 해안거점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유재란은 강화교섭 결렬 이후 전개되었기에 조선과 명에서 일련의 방어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의 입장에서도 공격전 준비와 함께 방어책 역시 굳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부산에서 1만 명의 병력으로 주둔하는 외에⁶⁶⁾ 안골포 등에도 다수의 병력을 포진하였다. 동래와 부산 지역에는 정유재란 직전 다시 1만이 넘는 병력이 주둔하게 되었고,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을 상륙지점으로 삼은 후 곳곳으로 파견되

66) 정유재란 초기 충청도 병마절도사 이시언에게 사로잡힌 복진감개(福田勘介: 후쿠다 간스케)의 공초(“부산에 머물고 있는 장수 金冪의 군사가 1만 4~5천이 되고”)에 나오는 ‘金冪’가 바로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이다.

었다.

명령이 내려진 이래 부산의 일본군 진영에서는 전쟁 준비가 속속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선의 정탐인에 의하면, 1597년 5월 부산의 성곽은 두세 겹으로 완전하게 쌓여있었고, 성을 수비하는 장비들도 배로 늘어나 있었다. 군량과 병력 진영 사이를 오가는 모습도 목격되었다.⁶⁷⁾ 병력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각 진영 간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병력과 군량, 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또 다른 차이는 일종의 감찰역인 군감찰[軍目付]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히데요시는 2월 명령에서 부산에 주둔하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군감찰로서 오타 카즈요시, 선봉의 군감찰로서 모리 시게마사 등 총 7명을 군감찰에 임명했다.⁶⁸⁾ 히데요시는 군감찰의 보고만을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보고를 통해 상벌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장수들의 전공을 점검하고 히데요시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정유재란시 일본군은 전공의 증거로 조선인의 코를 잘라 바치게 하였는데, 군감찰들은 이를 확인한 후 이른바 코 영수증[鼻請取狀]을 발급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부산은 무고한 조선인들의 코를 모아 일본으로 보내는 창구의 역할도 담당해야만 했다.⁶⁹⁾

1597년 7월 일본군의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군 장수들은 모리 히데모토가 부산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선봉을 두 부대로 나누어 ‘적국 지역[赤國表]’, 즉 전라도 지역을 침공하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히데요시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 결정에

67) 『直祖實錄』 권88, 선조30년(1597) 5월 18일 무신.

68) 北島万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て, 1982. 쓰노 토모아키,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과 군사행동』 (2017년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 도록); 津野倫明, 『丁酉再亂時の日本の目的と日本側の軍事行動』,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에서 인용.

69) 부산은 인신매매단의 출발지이기도 했다. 정유재란기에 일본군을 따라 온 중군 승려인 케이넨[慶念]은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조선인을 강제로 사로잡아 일본으로 보내려는 인신매매 무리를 목격하였다(慶念, 『朝鮮日々記』 1597년 7월 9일).

의해 ‘두 부대’ 즉 우군·좌군이 편성되었고 또한 별도로 수군도 편성되었다.

부산 회의 후, 이들 세 부대는 부산, 혹은 그 주변으로부터 전라도로 향해 진군했다. 우군은 경상도를 북상하여, 황석산성 전투를 거쳐 전라도에 침공하여 전주에 이르렀다. 좌군은 경상도 남부를 하동까지 서진하여 마찬가지로 이 지역으로 서진해 온 수군과 합류하고, 함께 전라도를 침공한 후 남원성을 공략하고 전주에 이르렀다. 전주에 모인 일본군은 8월 26일 회의를 가진 후 북상할 부대와 남하할 부대를 정했다. 남하한 부대는 정읍에 도착하여 9월 16일에 회의를 열었고, 당시까지의 상황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알리기 위해 14명의 장수들이 공동으로 서장을 작성했다.⁷⁰⁾

이 서장 중 동래·부산과 관계된 부분은 두 군데이다. 해당 항목의 요지를 현대어로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1. (4번째 항목) 부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가 주둔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에 건너오는 지역으로 명령 하달과 보고 상달을 위한 요지이므로,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로 하여금 주둔하게 함이 옳다고 보입니다.
1. (5번째 항목) 다치바나 무네시게는 믿을만한 인물입니다. 시마즈 요시히로와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주둔하는 지역 사이의 1개 성에 주둔하게 하자는 의견을 올립니다.

1597년 7월 이래 전개된 군사 활동 이후, 일본군은 주둔지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안골포에 주둔하기로 되어있었던 다치바나 무네시게에게는 히데요시로부터 부산으로 주둔지를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70) 『島津家文書』 988.

보인다. 그러나 일본군 장수들은 회의 끝에, 부산은 중요한 지점이므로 그보다는 모리 요시나리에게 맡기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물론 모든 결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르거나, 사후 허락이라도 받아야만 했기에, 회의 결과를 서장으로 만들어 보고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서장에서는 네 번째 항목에 등장하는 모리 요시나리만은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일본군의 결정에 따라 부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추측된다.⁷¹⁾ 이와 같이 정유재란시 일본군 명령서를 통해서도 당시 일본군이 부산을 관리하는 일에 항상 유의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부산 주둔이 지시된 모리 요시나리는 비록 대규모 병력을 거느린 장수는 아니었으나, 장수들 사이에서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신망도 높았다고 한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히데요시의 처조카에 해당하는 이로, 유서 깊은 가문인 고바야카와 가문에 양자로 가서 큰 병력을 이끌고 있었으나, 당시 나이는 10대 중후반에 불과하였다.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1597년 말까지 부산에 주둔하였으며, 귀국할 때에도 병력을 모두 데리고 가지는 않았다.

1597년 7월부터 시작된 정유재란의 전투 상황은 9월 북상하던 일본군과 방어 태세를 갖춘 명군 사이에서 벌어진 직산 전투 이후 일본군이 남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짧은 소강기에 접어들었다. 물론 일본군은 돌아가는 중에도 각 지역에 대한 살육과 약탈을 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맡은 지역으로 돌아가 둔거했다. 그러나 명군이 재출병하여 남하하기 전까지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주둔지 주위를 약탈하고 백성들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고 있었다. 그 잔학성은 이전보다 심해졌다. 동래 방면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고, 일본군의 움직임

71) 이상 정유재란시 일본군의 군사회의에 대해서는 津野倫明, 「丁酉再亂時の日本の目的と日本側の軍事行動」,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 참고.

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던 조선측에서는 나뭇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1597년 10월 30일에는 조선군이 기장 입석 부근에 매복하다가 울산에서 동래로 향하는 적을 공격한 일이 있다.⁷²⁾ 울산 지역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 내지 아사노[淺野] 가문의 일본군이 동래 지역을 오가고 있었으며, 미리 매복하던 조선군이 이를 요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97년 12월, 명군 지휘관 楊鎬가 이끄는 군사가 울산의 도산성을 포위하였다. 명군과 조선군 연합군은 가토 기요마사가 농성하던 도산성을 함락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전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굶은 날씨도 이어진데다가, 일본군 구원병이 도착하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명군 중에서 祖承訓과 頗貴가 부산에서 오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배치되었으나,⁷³⁾ 부산과 양산에서 1만 명 이상의 일본군이 접근했다고 한다.⁷⁴⁾ 동래와 부산, 서생포 등지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육로와 수로를 통해 울산까지 접근했다. 명군을 이끌던 양호는 전투 종료 후 그가 도산성 전투의 공로를 과장했다는 정응태의 고발에 의해 탄핵을 당했다. 조선 현지에서 명군을 총괄할 지휘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1598년 9월 3명의 명군 제독과 1명의 수군 도독에 의한 4로 진격 작전이 시작되었다.

조선의 일본군 진영에 대한 정보 수집은 지속되고 있었다. 1598년 5월, 조선에 투항한 항왜 要汝文이라는 자가 부산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졸로 임진왜란 때 건너와 부산에 3년 간 머무르다가 돌아갔으며, 정유재란 때 다시 건너와 부산에 머무르다가 조선 사람으로부터 조선이 항왜를 후대한다는 말을 듣고 투항했다고 한다. 그의 공초에 의하면, 부산에는 조선인이 남녀 각각 2천여 명씩 있다고

72) 『宣祖實錄』 권94, 선조30년(1597) 11월 28일 을묘.

73) 『宣祖實錄』 권96, 선조31년(1598) 1월 3일 기축.

74) 『宣祖實錄』 권97, 선조31년(1598) 2월 8일 계해.

하였다. 부산에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腰牌를 지급하여 일본군 진영을 출입할 시에 점검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산에는 두 곳에 성을 수축하고 있다는 정보도 전했다.⁷⁵⁾ 당시 부산 지역 내에 조선인이 4천명 정도 있다는 사실, 부산 지역과 일본군이 주둔하는 부산성은 별도의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선인에게는 신분증명서를 주어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을 수축하고 있던 상황이 확인된다. 요여문의 공초에서는 도산성 전투 당시 부산에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가 구원군으로 3백여 명을 파견했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1598년 8월 중순 즈음이 되면 상황의 변화도 목격된다. 조선이 파견한 군관의 보고에 의하면 동래 선암사에서 부산의 일본군 진영을 바라보니 1/3이 철수하여 돌아갔다고 하였으며,⁷⁶⁾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이 위중하여 일본군들이 철수해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부산과 동래의 일본군들이 진영을 불태우고 서생포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보고도 전해졌다.⁷⁷⁾ 물론 이러한 보고들 중에는 오해에서 비롯된 정보였거나, 헛소문으로 밝혀진 일들도 있었다. 조선 조정이 여러 정보를 수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1598년 9월에는 부산포에 약 4천~5천의 병력이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⁷⁸⁾ 하지만 진영들 간에 이동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울산 도산성 전투 이래, 일본군은 명군의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기 위

75) 『宣祖實錄』 권100, 선조31년(1598) 5월 5일 기축; 조선은 이전부터 동래와 부산의 일본군 지역에 있는 조선인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투항을 유도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었다(『宣祖實錄』 권55, 선조30년(1594) 9월 4일 기묘, 9월 6일 신사).

76) 『宣祖實錄』 권103, 선조31년(1598) 8월 13일 병인.

77) 『宣祖實錄』 권103, 선조31년(1598) 8월 20일 계유.

78) 『宣祖實錄』 권104, 선조31년(1598) 9월 28일 경술.

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현지의 일본군들이 주장하는 전선 축소론에 반대하며 분노하기도 했으나, 결국 방어력을 한정된 지역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위의 보고들은 그러한 움직임의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설은 당시까지는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부산과 동래의 진영 철수 모습도 모두 철거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선을 축소하면서 부산 등 일부 지역의 방어력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명군의 4로 진격이 시작되기 전인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 많은 일본인들이 전쟁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전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표면화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망에 임박하자 강화교섭에 대한 의향을 밝혔으며, 미처 이를 실현에 옮기기 전에 죽고 말았다.⁷⁹⁾

공식적인 철수명령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히데요리가 성장할 때까지 보좌역할을 부여받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의 다이로[大老, 혹은 토시요리[年壽]로 지칭됨]에 의해 8월 25일자로 내려졌다.⁸⁰⁾ 명령 전달 임무를 띤 도쿠나가 나가마사(德永壽昌)와 미야기 토요모리(宮木豊盛)는 조선으로의 파견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두고 서약을 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조선에서의 강화교섭 건은 가토 기요마사나 고니시 유키나에게 맡길 것.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일본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택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편향되는 바 없이 두

79) 이하 일본군의 철수 명령과 명군-일본군 사이의 철수 교섭에 대한 내용은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80) 명령서들은 마치 히데요시가 생존한 상태에서 발급한 것처럼 꾸며졌다(『島津家文書』 423, 435, 『鍋島家文書』 131 등).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후였고, 명령 전달 임무를 지닌 도쿠나가 나가마사(德永壽昌), 미야기 토요모리(宮木豊盛)가 철수 명령과 함께 사망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히데요시의 사망보고와 철수명령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北島万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て, 1982, 342~346쪽.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 吉川弘文館, 2006, 349~372쪽, 참조.

사람의 의견을 듣되, 부정한 행위[私曲]를 하는 자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보고할 것 ②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자가 있으면 보고할 것 ③ 조선에 주둔 중인 이들에게 명령을 정확히 전달할 것이라는 지침이었다.⁸¹⁾

그리고 이시다 미쓰나리 등 다섯 명의 부교[奉行]는 ① (조선) 왕자를 보내온다면 병력을 남기지 말고 철수하라 ② 調物[공물]쪽을 선택한다면 조선 관인이 쓰시마까지 건너왔을 때를 기다려 전원 철수할 것 ③ 조선의 관인이 오지 않는다면 부산의 성 하나를 남겨둘 것이라는 지침을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⁸²⁾ 부산은 최후의 교섭을 위한 지점으로 남겨두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이들이 파견된 후 재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9월 5일에 4인의 다이로의 이름으로 작성된 최종 명령서는 다음과 같았다.

- 1(1). 강화교섭은 앞서 가토 기요마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기요마사가 담당하기 어렵다면 누구라도 맡아서 일을 마무리 지어도 좋다. 따라서 부디 잘 해결되도록 궁리할 것. 방심하지 말 것.
- 1(2). 강화교섭의 형태로는 조선 왕자가 오게 된다면 가장 좋다. 안된다면, 공물로 협상하라. 일본의 外聞⁸³⁾을 위한 것이므로 공물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다. 그러므로 서로 논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성사되게 하라.
- 1(3). 겨울이므로 이쪽의 의향을 묻기 위해 왕복하기는 어렵다. 문의하지 말고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강화교섭 명령이 내려진 이상, 공물이든 왕자든 성사만 되도록 추진하라.
- 1(4). 모두를 맞이할 때는 다이코[太閤 : 도요토미 히데요시]께서 새

81) 1598년 8월 22일자 2인의 起請文[서약서]案 (『島津家文書』 982).

82) (1598년) 8월 25일 나즈카 마사이에, 이시다 미쓰나리, 마시타 나가모리, 아사노 나가 마사, 마에다 겐이가 2인에게 보낸 覺書案 (『島津家文書』 984).

83)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받게 될 평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운 배 1백 척, 그 외 여러 포구의 배 2백 척, 도합 3백 척을 잇달아 보낼 예정이다.

- 1(5).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리 데루모토, 우키타 히데이에가 하카타까지 가서 모두의 귀환을 지원하려 했으나 병력이 필요 없다고 하여 중지하였는데 염려가 된다. 그런데 모리 히데모토, 아사노 나가마사, 이시다 미쓰나리가 파견되었으니, 조선의 상황에 따라 도해하게 될 것이나(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칠 것.⁸⁴⁾

첫 번째 항목을 보면 가토 기요마사에게 교섭권이 주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교섭 방식보다 기요마사 쪽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조선의 왕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수에 상관치 말고 공물로 대체해도 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일본 본토로부터 일일이 지시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이상의 지시에 입각하되 구체적인 교섭은 현지의 판단에 따르라는 것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퇴각하는 일본군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과 선박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이 철수명령서는 히데요시 사망이라는 급박한 정세에 호응하여 ‘현실적인’ 방향으로 지침을 조정한 후 최대한 빨리 교섭을 성사시키려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던 철수 교섭에서 일본군은 명과 조선에 대해 이 정도의 요구조차 제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다.⁸⁵⁾

84) (1598년) 9월 5일 모리 데루모토, 우키타 히데이에, 마에다 토시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주둔 장수들에게 보낸 명령서(『淺野家文書』 91, 『鍋島家文書寫』 8, 『島津家文書』 1088, 『黒田家文書』 24 등).

85) 명군 유격 茅國器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 중에는 그러한 요구를 제안한 이도 있었으나 일거에 거절했다고 한다(『宣祖實錄』 권108, 선조32년(1599) 1월 20일 신축). 한편 모국기가 일본군에 보냈다는 문서나, 후일 명군 인질 송환시에 전해진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서신에는, 조선의 왕자 혹은 신료를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10월 1일, 철수명령이 부산에 도착했다.⁸⁶⁾ 시간은 마침 명군의 4로 공격 종결 시점과 맞아 떨어졌고, 명군과 일본군 사이의 철수교섭에는 속도가 붙었다. 명군 장수 유정과 동일원은 일본군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해줬다. 울산에서 부산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한 麻貴는 전투와 강화 교섭 모두를 포기하고 일본군 철수를 바라보기만 했다. 일본군은 11월 17일에서 19일 사이 각자의 진영에서 나와 부산에 집결한 후 대부분 무사히 철수했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과 진린의 명군 수군만이 도망치는 일본군을 저지하려 했다.

한편 단독 교섭권을 부여받았던 가토 기요마사는 교섭 대상자를 찾지 못한 채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다. 1598년 11월 18일 고니시 유키나가순천 왜교성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향했고, 11월 26일 고니시 유키나가 부산을 떠나면서 모든 일본군이 동래와 부산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군은 부산의 진영을 모두 불태운 후 바다를 건넜다.

일본군이 철수하자 명군은 곧 일본군 진영으로 진입했다. 부산은 일본군이 최후로 머물다가 떠난 곳으로서, 명군 지휘부는 4개 방면의 지휘관을 모두 이곳으로 가게 했다. 제독 마귀는 12월에 徐觀瀾를 비롯한 명측의 감찰 및 어사 등을 대동하고 부산에 가서 일본군이 남긴 성채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였다. 사람들이 “바깥 성채는 공파할 수 있어도 내성은 천연적인 요새니 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성에 다가가면 인명만 애석할 뿐인데 적이 물러갔으니 이는 곧 천운이었다”고 하자, 마귀는 “이와 같기 때문에 나로서도 쳐부술 수 없었다”라고 했다고 한다.⁸⁷⁾ 일본군은 7년에 걸쳐 이처럼 강력한 요새를 이곳에 만들고 유지했던

【『宣祖實錄』 권109, 선조32년(1599) 2월 2일 임자 이덕형의 발언, 권115 7월 14일 신유; 『宣祖實錄』 권124, 선조33년(1600) 4월 14일 정해].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적어도 철수교섭시에 명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86) 『鍋島家文書寫』 13.

87) 『宣祖實錄』 권107, 선조31년(1598) 12월 29일 경진.

것이다.

V. 맺음말

동래 지역은 임진왜란의 緒戰과 함께 일본군의 침략을 받았다. 일본군은 동래와 부산에 큰 규모의 성을 지었고, 성 사이를 잇는 지역에도 거점들을 만들어 대규모의 기지를 건설했다. 동래와 부산은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와 최초로 병력을 가다듬는 장소이자, 일본으로 귀환시에도 거쳐 가야만 하는 지역으로, 전쟁 기간 내내 유력한 장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병력과 군량은 충분히 갖추어졌고, 성채도 지속적으로 수축되었다.

강화교섭이 시작되자 많은 일본군들이 귀환하였으나 부산의 일본군 진영은 축소되지 않았다. 명에서 책봉사가 차출되어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성 파괴를 명령했을 때도 부산 등 주요 왜성은 남아있었다. 정유재란이 벌어지자 동래와 부산은 다시 일본군의 주요 기지로 기능하였다. 정유재란시 일본군은 남해안에 왜성을 쌓고 내륙 공격을 자제하며 장기전을 치르려고 했기에, 동래와 부산의 중요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일본군에게 전면 철수 명령이 내려지면서 일본군은 모두 부산으로 모여들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이 이곳에 있었다.

한편 이곳에는 일본군 이외에도 많은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군은 조선 현지에서 군량을 마련해야 했다.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더욱 현지에서의 생산물 확보가 중요해졌다. 피난을 택하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이 지역에 그대로 남아 생활을 했고, 일본군은 그들의 생산물을 걸어 군량 등으로 사용했다. 조선은 이 백성들

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어내거나, 일본군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진영 내의 생산에 손상을 가하고자 했다. 교섭 기간 중에는 명과 조선의 사절과 그들의 수행원 등도 이곳을 오갔다.

임진왜란 초기의 부산진성 전투, 동래성 전투, 다대포진성 전투,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부산 해전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동래와 부산 지역이 임진왜란 당시 겪었던 일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이 지역이 전쟁 전 기간 동안 겪었던 일에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임진왜란기 동래와 부산에서 벌어졌던 일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1) 한국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한국고전번역원 · 국사편찬위원회)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

金誠一, 『鶴峯全集』; 趙慶男, 『亂中雜錄』; 李肯翊, 『燃藜室記述』; 申晷, 『再造藩邦志』; 安鼎福, 『順菴集』 (한국고전번역원)

2) 일본

『鍋島家文書』 (佐賀縣立圖書館編, 『佐賀縣史料集成』 3)

『鍋島家文書寫』 (『佐賀縣史料集成』 16)

『毛利家文書』 『小早川家文書』 『淺野家文書』 『島津家文書』 『吉川家文書』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大日本古文書』)

『黑田家文書』 (福岡市博物館編)

下瀨賴直, 『朝鮮渡海日記』 (『防長叢書』 6, 1934)

天荊, 『西征日記』 (國書刊行會, 『續續群書類從』 3, 國書刊行會, 1907)

慶念, 『朝鮮日々記』 (朝鮮日々記研究會編, 『朝鮮日々記を讀む: 眞宗僧が見た秀吉

の朝鮮侵略』, 法藏館, 2000)

『防長叢書』 6, 防長史談會, 1934.

2. 저서 및 논문

1) 한국

김강식, 「임진왜란 전후 부산지역의 사회변화」, 『함도부산』 22, 2006.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軍史』 95, 2015.

_____, 「東京大學 史料編纂所 소장 『江雲隨筆』 내 임진왜란 관련 사료 해제」, 『전쟁과 유물』 7, 2015.

_____,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수집과 재침 대응책」, 『한일관계사연구』 59, 2018.

_____, 「임진전쟁기(1594년) 조선군과 일본군의 이면교섭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61, 2018.

김동철, 「부산의 일본 관련 문화유적과 활용방안」, 『한국민족문화』 23, 2004.

羅東旭, 「韓國釜山市域の倭城の現状」, 『倭城の研究』 3, 城郭談話會, 1999.

_____, 「壬辰・丁酉再亂前後の朝鮮城と日本城の相互利用に關して-釜山鎮城を中心に」, 『倭城の研究』 6, 城郭談話會, 2010.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被虜人 沙器匠」, 『한국민족문화』 33, 2009.

_____,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 2010.

심봉근, 「釜山浦와 釜山鎮城의 공간적 위치분석」, 『문물연구』 25, 2014.

양홍숙, 「조선의 對日關係와 동래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_____, 「부산의 임진왜란 기념물 조성과 도시경관화」, 『지역과 역사』 40, 2017.

이일갑, 「부산 다대포진성에 대한 연구」, 『함도부산』 35, 2018.

李炯錫, 『壬辰戰亂史』 上·下, 壬辰戰亂刊行委員會, 1967.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編, 『大邱地域 壬辰亂史』,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7.

_____, 『慶北地域 壬辰亂史』,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8.

전송희, 「동래성전투에 대한 기억서사와 표상-공간의 형성과정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53, 2013.

정의도, 「壬辰倭亂 關聯 遺蹟과 出土遺物 研究」, 『석당논총』, 40, 2008.

- 정중환, 『壬辰倭亂時の釜山地區戰鬪』, 『군사』 2, 1981.
- 정출현, 『임진왜란의 상처와 여성의 죽음에 대한 기억 -동래부의 김섬(金蟾)과 애향(愛香), 그리고 용궁현의 두 부녀자(婦女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2010.
- 조희상, 『忠壯公 鄭撥에 대한 再考察』, 『동방한문학』 60, 2014.
- 津野倫明, 『丁酉再亂時の日本の目的と日本側の軍事行動』,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
- 崔孝軾, 『임진전쟁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 _____,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 _____,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신라문화』 26, 2005.
- 하우봉,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과 일본관계』, 『항도부산』 9, 1992.

2) 일본

- 北島万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えて, 1982.
- _____, 『豊臣秀吉朝鮮侵略關係史料集成(全3卷)』, 平凡社, 2017.
-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 吉川弘文館, 2006.
- 池内宏,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
- 太田秀春, 『朝鮮の役と日韓城郭史の研究 ―異文化の遭遇・受容・變容―』, 清文堂, 2005.

투고일 : 2019. 06. 05. 심사완료일 : 2019. 07. 05. 게재확정일 : 2019. 07. 25.

| Abstract |

War of the Dongnae Region during the Imjin Wars

Kim, Kyong-Tae

In this paper, studied the situation of Dongnae and Busan during the Imjin War. During the war, the present Busan area was at the center of the war. The Japanese military built large castles in Busan and Dongnae, its first landing site, and used them as a base for invasion. The area was the first place for Japanese troops to arrive. It was also a place that had to go from Joseon to Japan.

The Japanese army appointed an officer to manage the area. There was always plenty of troops and military provisions here. Although the size of the Japanese army was reduced during the peace negotiations, this area remained a major base. Practical negotiations took place here. Ming and the Joseon ambassadors dispatched to Japan also went to Japan via this place. When the negotiations were broken, Busan and Dongrae had a war system again. As the front lines have narrowed, there are more missions here than before. The captivated Koreans were taken to Busan and moved to Japan.

It should also be remembered that many Koreans lived here during the war. The Japanese army had to prepare military provisions in Joseon. As the war became prolonged, securing of resources in Joseon became important. The Koreans who could not escape remained in this area. The Japanese army took their products and used them as military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Joseon government was able to use this people to obtain inform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amps. Joseon constantly tried to drag them out of the Japanese military zone. In the process, Japanese troops surrendered to

Joseon.

This article aims to revive the forgotten part of the history of this region during the Imjin War.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o look back at this period as a history that should be remembered, even though it is a painful history, not only as a negative one.

Keyword: Imjin Waeran, Imjin War, Japan's second Invasion(1597), Dongnae, Busan, Gijang, Gadeok, Waeseong(Japanese Fortress), Mori Yoshinari

